



모이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강위 소식지 VOL. 1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5.05.19.(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통상임금 대법원 승리 뒤, 회사는 현장 흔들기...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스 지회 단결로 맞선다

2025년 임단협, 기업노조와 공동교섭 방식 유지... 외부 변수로 긴장 고조
조합원 중심으로 단일노조·단일공동체 실현이 올해 핵심 목표
조합원 확대 목표 100명, 배가사업에 조직력 집중
트럼프 관세, GM 철수설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투쟁의지 확고

[경주=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소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플라스틱옴니엄지회가 2기 2년차를 맞아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기업노조와 공동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올해는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얹혀 교섭 환경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제기되는 25% 자동차 관세 부활 가능성, 그리고 GM의 철수설은 전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측에서 경영난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섭을 돌파해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차 25% 관세가 발효됐다. 말 그대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과 함께 혼란의 문이 열렸다.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잠시나마 중단하긴 했으나 그가 말한 '해방'은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고통의 시작'에 가깝다.



플라스틱옴니엄지회는 이러한 외부 악재와 함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의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조합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힘으로 지회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회는 특히 단일노조, 단일공동체 실현을 올해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노조와의 정기적 소통과 현안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 22일 진행된 보충교섭 상견례는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는 첫 걸음이었다.

또한, 복수노조 환경에서 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지회는 "단일노조로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싸울 줄 아는 조직이며, 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조합원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현재 84명의 조합원을 2025년 내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운영위원회 및 간부들과 함께 배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저변을 넓히고, 보다 강한 투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회는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기필코 승리하고 통합하는 그날까지 전진하겠다"며 마지막 결의를 전했다.

플라스틱옴니엄지회는 투쟁으로 통합을 준비한다. 경주지부와 함께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